

한국어 학습자 어절 사전의 미시 구조 체제와 내용

홍 종 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한국어 교육학과 사전편찬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편찬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전 사용의 환경이 바뀌어, 인터넷이나 각종 전자 매체의 활용을 일상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전 편찬이 요구되면서 이에 따르는 사전들도 조금씩 개발되고 있다.

한국어는 단어와 어절의 형태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용된 용언 단어도 사전의 올림말과 다른 형태로 나타난 활용형이 대다수이므로, 지금까지 나온 기본형 단어 올림말 사전만으로는 그 이용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국어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성장기 학생이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 이러한 한계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으로, 어절 단위를 올림말로 하는 ‘한국어 어절 사전’을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홍종선(2011)에서 특히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위한 ‘어절 사전으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사전’(이하 ‘학습자 어절 사전’)의 편찬을 제안하고 그 올림말에 관해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학습자 어절 사전의 미시 구조 항목 가운데 문법 정보, 뜻풀이 및 용례에 관하여 체제와 내용을 논의한다.

2. 단어 사전과 어절 사전, 그리고 학습자 사전

이제까지 나온 한국어 사전들은 거의 모두 단어를 올림말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사전의 올림말에는 대개 접사나 어미 또는 어근이나 일부의 단어성 구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전(이하 ‘단어 사전’)에서는—예를 들어 ‘어미 사전’이나 ‘관용구 사전’과 같은 특수 사전이 아니라면—기본적으로 단어를 올림말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실제 표현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이 단어 사전의 올림말과 그 형태가 다른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명사(체언)는 으레 조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루고, 용언은 거의가 매우 다양한 어미들과 결합한 모습으로 쓰이므로, 표기에서나 발음에서나 단어 사전에서의 올림말과 일치하는 대응 형태를 변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띄어쓰기의 단위는 단어가 아니라 어절이며, 발음도 대개 어절 단위로 쉽과 억양 곡선을 이룬다. 한국어 표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체언과 용언의 실제 사용 형태가 이처럼 사전에서의 올림말과 무척 다른 것이다. 글이나 말에서 언어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와 쉽(휴지) 단위에서 언어 의미상 최소 독립성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이 단위가 사전의 올림말로 되어야 그 이용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어 단어 사전들은 일반인들의 언어 현실에 대한 1차적인 인식 내용과 어느 정도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어 사전 이용자들은 그들이 쉽사리 인식되는 ‘어절’ 단위에서, ‘명사’는 ‘조사’와 분리하고, 용언은 어간을 여러 어미들에서 분리한 후에 어미 ‘-다’를 붙이고서야 사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 과정은 국어 초급 학습자나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혼란을 가져온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 어간의 변화형, 그리고 용언의 다양한

활용 어미 결합 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2006)에서 ‘고마워’라는 항목을 찾으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1) **고마워**-(고마워, 고마워서, 고마웠다) ⇨ 고맙다.

여기에서는 ‘고맙다’의 변이형 어간만을 올림말에 놓았을 뿐,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이 언어 모습만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 기껏 이 항목에서 표시해 놓은 ‘고맙다’를 2차로 찾아서 대략의 의미를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고마웠어’ 정도가 된다면 어느 사전에서도 이 말의 뜻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처럼 매우 자주 쓰이는 말들도 그 뜻을 학습자들이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나는’과 같이 그 어절 형태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동형어일 때는 사전을 아예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어절 사전’의 올림말은 어절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전의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나 어근, 접사, 어미, 단어성 구절도 올림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이전 사전에서 올림말의 대다수를 이루는 ‘단어’가 언어 현실 쓰임에서 그대로 하나의 ‘어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밖의 다른 종류 올림말들에 대해서도 이전 사전에서 하는 기능을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각 어절 올림말의 뜻풀이는 단어 형태 올림말의 풀이말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어절 사전은 이전 사전에다가 어절 형태도 그대로 올림말로 더한 것이지만, 분량 면에서는 후자(단어의 기본형이 아닌 활용형과, 단어보다 더 큰 형태)가 월등히 많게 된다.

이와 같이 이전 사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올림말을 담게 될 어절 사전은 자연히, 매우 많은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전이나 앱 사전 또는 전자 수첩 사전—이들을 통틀어 ‘전산 사전’으로 이름한다—을 전제한다. 이들은 이전의 종이책 사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도 가질 수 있어, 올림말의 수 외에 뜻풀이 등의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가령 음성 언어나 동영상을 동반함은 이미 영어 등 여러 언어권의 학습자 사전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종이책 사전에서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클릭이나 화면 터치를 통하여 제2차 조각 화면을 띄우기도 하며 또다른 상세 정보 회로에 접어들 수도 있다. 물론 어절 사전에서도 음성 언어나 동영상, 제2차 화면 접속 등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어절 사전이 가진 이러한 장점이나 특징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에 매우 유용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형태를 분석하거나 단어 형태를 제대로 잡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 언어적 분석을 크게 요구 받지 않으며 단어 인식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은 채 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어절 사전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 사전들은 올림말의 범위나 형태에서 일반 사전과 별반 차이가 없이 편찬되어,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전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¹⁾ 문제는, 어느 정도 낭비적 요소도 있는 어절 사전의 커다란 용량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1) 정상근(2001)에 의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사전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유의어 용례, 발음 표기, 문법 정보에 이어 4번째로 용언의 기본형만 올림말에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어미 변화가 있는 일본어권 학습자에서도 이러한 정도라면, 첨가어가 아닌 언어권 학습자에게 활용 어미의 분간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산 사전에서 쉽게 해결되었다. 이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서 정보 제공력이 높은 어절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연구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미시 구조 항목들의 구성

일반 사전과 같이 한국어 학습자 사전(이하 ‘학습자 사전’)에서도 각 올림말의 미시 구조는 ‘원어, 발음, 품사,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보충 정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자 어절 사전에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학습자 어절 사전에서 이들 각 항목들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그것은 크게 나누어, ‘기본 올림말’(단어의 기본형 또는 단어 이하의 형태들, 즉 기존 사전에 나오는 올림말)과 ‘부가 올림말’(체언과 조사 결합형 및 용언의 기본형 이외의 활용형으로 된 어절 단위의 올림말)에서 각기 특성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사전의 각 올림말이 갖는 미시구조에서 비교적 중요성이 높아 비중 있게 다루는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에 대해서 학습자 어절 사전의 특징을 논의하는데, 특히 학습자 사전과 차이가 많은 문제에 유의하기로 한다. 기존 사전에 관하여 문제점을 말하거나 비교하는 논의를 할 때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2006)(이하 「학습 사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²⁾

‘문법 정보’는 학습자 어절 사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이다. 용언은 물론 체언이나 수식언들도 그가 쓰이는 용법을 문형으로써 보여준다. 이전의 사전들은 대개 용언의 문형 정보만 소략하게 메타 언어로 주었고, 학습 사전에서도 일부 용언에 한하여 출현 위치를 아주 간단히 보이는 정보를 보였을 뿐이다. 학습자 어절 사전의 기본 올림말에서는 해당 올림말의 초기 화면엔 문법 정보를 간략하게 주고, 터치나 클릭으로 연결해 제2차로 전개되는 상세 화면에서는 매우 자세한 문형 정보와 공기 관계, 언어 정보를 준다. 물론 제2차를 넘어 제3차의 상세 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화면에서도 필요에 따라 상세 정보를 좀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때 기본 올림말과 부가 올림말에서 정보의 중복 제공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전산 사전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³⁾ 많은 경우에 기본 올림말과 부가 올림말의 상세 정보는 같은 화면으로 연결된다. 해당 올림말과 관련되는 올림말의 문법 정보와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올림말 표현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뜻풀이’는 기본 올림말과 부가 올림말에서 올림말의 서술 방식이 크게 다르다. 전자에선 이전의 학습자 사전과 비슷하지만, 후자에서는 관련되는 기본 올림말로 가라는 풀이말을 넣는다. 다만 부가 올림말의 뜻에 기본 올림말이 투명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직접 풀이말을 주면서 참고로 기본 올림말에도 갈 수 있도록 한다. 기본 올림말로 가도록 할 때에도 해당 부가 올림말이 기본 올림말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알려주어야 한다. ‘학습 사전’ 등 이전의 학습자 사전에서는 일부 활용 변이형 어간을 올림말로 넣을 때에 기본형과의 관련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이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기본 올림말은 어느 경우든 직접 풀이를 한다. 의미 내항들은 품사별로 사용 빈도순에 따라 배열하되, 기본 의미에는 별도의 표지를 둔다.

2) 현재 나와 있는 한국어 일반 사전들은 전산 사전이라고 해도 종이책 사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아직은 전산 사전으로서의 장점이거나 특징을 크게 살려 편찬하기보다 종이책 사전에 약간의 가공을 하여 전산화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산 사전과의 차별성을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어떠한 내용 정보가 각기 다른 항목 속에서 중복 제공되고 있는 예는 종이 사전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어절 사전이 전산 사전이라면 중복으로 인한 지면 낭비적 요소는 거의 무시하여도 좋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대용량의 이점을 살려,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장면을 달리하는 곳마다 간결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중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습자 사전들에서도 대부분 사용 빈도와 상관 없이 기본 의미를 먼저 두고 파생 의미를 뒤에 놓는 안이함을 보인다.⁴⁾ 풀이말은 사전학적 체계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현실성(실제성)이 높도록 한다.⁵⁾

‘용례’에서는 어절 사전의 장점이 매우 잘 드러난다. 이전의 사전에서는 학습자 사전이라고 해도 거의가 기본 올림말에서만 용례를 보였지만, 학습자 어절 사전에서는 부가 올림말에서도 용례를 보여서 그 말의 용법과 의미를 실제 표현에서 확인토록 한다. 용례는 내국인 초등용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 그리고 일반용 균형 코퍼스를 적절하게 배분한 자료에서 주로 찾는 데, 한국어 학습자에게 알맞게 가공을 많이 하여 수록한다. 이전 사전에 비해 매우 많은 용례를 다양하게 넣는다. 그 올림말이 갖는 언어/사회 문화나 인식, 정서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급적 많이 담아, 이해 언어와 더불어 표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례들은 출현 빈도와 표현의 일반성을 고려하여 배열하고, 터치나 클릭을 통해, 대조되는 용례와 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관련을 갖는 용례도 접속되도록 한다.

‘원어’와 ‘품사’ 및 ‘관련어’나 ‘보충 정보’ 등도 적극적으로 매우 풍부하게 마련하여 학습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들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고찰하도록 한다.

4. 마무리

생략

<참고 문헌>

서상규 외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정상근 2001.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 용언활용형의 표제어 선정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홍중선 2011.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올림말.” 연변대학 조문계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홍중선 외 2000. 「중의어절사전」 태학사.

4) 「학습 사전」의 ‘도리’ 항을 보면, ‘1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2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2번의 뜻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
5) 「학습 사전」의 ‘꽃’ 항을 보면, 첫 풀이말이 ‘한동안 좋은 빛깔과 향기가 있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식물(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서 학습자들에게 곧바로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하였다. 한 것이다. 설명에 다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에 비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꽃’이 전문어로서 ‘종자식물의 번식 기관. 모양과 색이 다양하며, 꽃받침과 꽃잎,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 기준에 따라 갖춘꽃과 안갖춘꽃, 단성화와 양성화, 통꽃과 갈래꽃, 풍매화와 충매화 따위로 나눈다.’로 되어 있어, 부가 설명까지 읽어도 초기 한국어 학습자에게 의미 파악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